사라진 그들은 어디에…

전남 실종 5년간 청소년 33명·3년간 여성 155명…실종사건 대대적 수사 확대해야

강진 사건 용의자 확보 계기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 확산으로 범죄 예방 필요

경찰이 재수사를 통해 2000·2001년 강진군에서 일어난 여자 초등생 실종 미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확보함에 따라 그 동안 전남 곳곳에서 발생한 아동·여성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추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강진읍에서 실종된 김성주·김하은양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진에서는 지난 2000년 6월15일 오후 2시께 강진읍에서 김성주(당시 8세·초교 2년)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데 이어 2001년 6월1일 오후 1시30분께에는 김하은(당시 6세·초교 1년)양이 사라져 전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008년 새롭게 장기 실종 어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10년 넘게 강진 실종 초등학생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끝에 최근 유력 용의자를 확보했으며, 상당 부분 간접 증거를 확보했다.

전남에선 2000년 이후 김성주·김하은양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어린이(초등학생 이하)가 실종됐고, 최근 5년간 전남에서 실종된 18세 미만 청소년은 33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남도내에서 실종된 여성도 상당수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실종된 여성은 총 155명이다.

김성주·김하은양이 실종된 강진에서는 2016년 1명, 2017년 1명 등 2명이 실종신고됐다. 같은 기간 강진 인근 해남에선 7명, 영암 15명, 장흥 11명 등이 실종됐다.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실종여성 중 22.5%에 이르는 35명이 강진과 인근 해남, 영암, 장흥 등 4개 군에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 전남도내에서 범인을 잡지 못한 미제 살인사건도 총 7건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미제 살인사건과 실종사건이 늘어날 경우 지역 사회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재범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완벽한 치안활동을 통해 범죄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성원 사이에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도 범죄 예방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종자가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사건 해결시까지 정상적인 삶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점도, 경찰이 실종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전남경찰청 허양선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아동과 여성 등의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시기별로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수시로 살펴보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해 범인을 잡아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측근 민정기씨 “전두환 골프 인정”

“골프와 법정출석 다르다” 주장 5월단체 “즉각 법 심판대 세워라”

알츠하이머 등을 핑계로 광주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를 쳤다는 의혹<광주일보 2019년 1월17일자 6면>에 대해 전씨의 측근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골프와 법정 출석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민정기(76) 전 전두환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17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님이 가끔 골프장을 가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골프와 광주법정 출석을 왜 자꾸 연결시키려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전 비서관은 “최근 전 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치매(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도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 골프는 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전씨가 골프 점수를 암산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골프 점수 계산은 방정식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가 있어도 간단히 할 수 있다”며 “광주법정 출석 거부는 알츠하이머에 따른 사고 능력 저하로 올바른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정 출석과 골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두환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두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전씨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자 5·18피해자는 물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한전 직원들의 일탈

태양광발전소 차명 분양 뇌물 챙겼다가 쇠고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가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한전의 지사장급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임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공사업체 대표 B씨 등은 한전 임직원에게 발전소를 분양해주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받고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

17일 고흥군 외나로도 북동쪽 6.4km 앞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85t급 어선 A호(여수 선적)에서 불이 나 여수해경이 진압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 제공〉

고흥 해상 어선 화재 1명 사망·1명 실종

조업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나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17일 오전 8시 30분께 고흥군 외나로도 북동쪽 6.4㎞ 앞 바다 위 A호(85t, 승선원 13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선내 화장실에서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B(2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화재를 피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국적 C(28)씨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경비함정 5척, 민간구조선 8척을 동원해 수색중이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이중 베트남 출신 선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선박 뒤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1시간 10여 분만인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완전 진화됐다.

해경은 선장 및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공사대금 부풀려 수억 챙긴 현장소장 등 8명 검찰 송치

순천경찰은 “하수관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공사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 B씨, 하청업체 대표와 직원 6명 등 모두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순천시 하수관로 공사를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장비 대여비 등 공사대금을 늘려 4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책임감리, 하청업체 직원들과 함께 공사에 들어간 자재 비용을 부풀려 10억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실제 공사에는 플라스틱 관로 2400여개를 설치해 놓고, 설계에는 6800여개로 늘려 10억원의 자재 비용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책임감리 B씨는 현장에 납품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된 것처럼 꾸며 국가기관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다.

2020년까지 700억원이 투입되는 순천시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지난해 11월 하수도사업 특별감사에서 공사비 부풀리기, 공법 무단변경 등의 비리가 포착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조문 후 귀가길 차량 전복…일가족 1명 사망·4명 부상

화순에서 차량이 전복돼 일가족 5명 중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지난 16일 밤 9시30분께 화순군 남면 사수리 한 도로에서 A(70)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의 외손녀인 B(4)양이 숨지고 운전자 A씨 등 일가족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은 이날 화순에서 친인척 장례식 조문을 마치고 순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초행길을 밤에 운전하면서 길을 헤매던 중 2m 아래의 농로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노상방뇨 왜 신고해’ 엉덩이 걷어찼다가 경찰서행

쌍나팔

○…길가에서 소변을 보던 중 신고를 당해 5만원짜리 경범죄 스티커를 받은 40대가 자신을 신고한 20대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행.

○…17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4)씨는 이날 새벽 0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서 B(25)씨의 엉덩이를 발로 한차례 걷어찼다는 것.

○…이날 A씨는 노상방뇨를 신고한 B씨에게 발길질과 함께 욕설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자신에게 범칙금 스티커가 발부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한 것 같다.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